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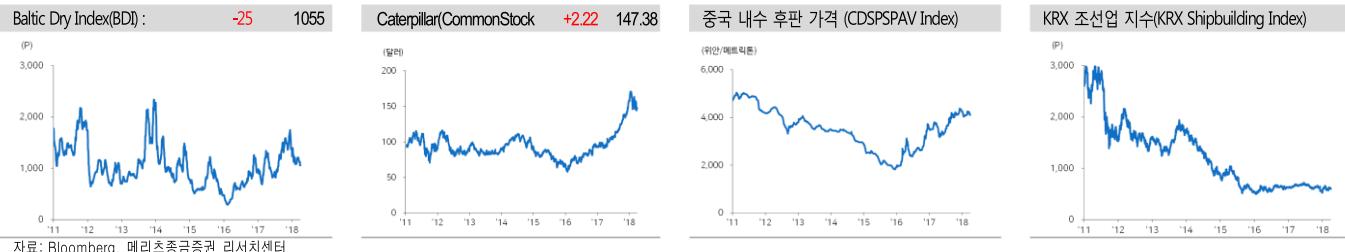
조선/기계 김 현

02. 6098-6699 / hyun.kim@meritz.co.kr

**국내 주요 조선/기계 업체 Valuation**

업체명	시가총액 (십억원)	외국인지분율 (%)	종가 (원)	1D	1M	3M	YTD	PER(x)		PBR(x)		ROE (%)	
				(%)	(%)	(%)	(%)	18E	19E	18E	19E	18E	19E
현대중공업	9,129.8	18.7	132,000	-4.0	0.8	28.6	37.6	92.0	44.1	0.6	0.6	0.7	1.4
현대로보티스	7,109.1	21.3	436,500	25	2.5	5.3	14.6	5.9	4.9	0.8	0.7	14.1	14.7
현대일렉트릭	842.0	7.0	82,500	0.4	-5.6	-28.6	-27.6	7.8	6.8	0.7	0.6	9.3	9.7
현대건설기계	1,753.0	8.5	177,500	0.6	6.3	-0.6	5.0	11.3	8.3	1.2	1.1	11.7	13.9
삼성중공업	3,478.8	15.3	7,720	-2.0	6.0	14.4	19.3	48.7	24.2	0.5	0.5	1.0	1.9
대우조선해양	2,943.7	3.9	27,600	-1.3	12.4	79.8	98.6	9.9	11.1	0.9	0.8	9.2	7.5
현대미포조선	2,000.0	12.5	100,000	0.7	-6.1	16.3	27.1	21.6	15.6	0.8	0.7	3.6	4.8
한진중공업	331.4	6.7	3,125	1.3	-5.0	-8.4	-5.6	62.9	15.7	0.5	0.4	0.7	2.8
현대엘리베이터	1,982.9	29.0	79,700	0.3	38.9	43.6	46.5	14.1	13.7	1.9	1.7	14.6	13.3
두산밥캣	3,147.8	27.0	31,400	-0.5	-5.4	-13.0	-12.3	11.5	10.8	0.9	0.8	7.4	7.6
현대로템	1,343.0	25.4	15,800	1.0	2.3	-16.2	-15.7	20.4	13.9	0.9	0.9	4.5	6.3
하이록코리아	312.4	48.1	22,950	1.5	-4.0	2.0	2.0	104	9.5	0.9	0.8	8.8	9.0
성광밴드	328.9	16.7	11,500	-2.1	-3.4	13.3	15.2	1,016.6	41.2	0.7	0.7	0.1	1.8
태광	332.6	15.2	12,550	-2.7	-13.1	2.0	4.1	74.9	36.6	0.8	0.8	1.0	2.1
두산중공업	1,692.8	10.4	15,900	0.0	8.5	1.9	3.6	13.1	9.8	0.6	0.5	4.3	5.3
두산인프라코어	2,012.8	13.1	9,670	-0.5	6.4	6.5	11.3	8.6	7.7	1.0	0.9	12.0	12.4
두산엔진	400.3	3.3	5,760	-0.7	30.6	49.6	56.3	-189.0	582	0.7	0.7	-0.4	1.3
한국항공우주산업	4,868.9	17.3	49,950	0.0	2.1	3.2	5.3	35.5	24.6	3.8	3.4	10.6	13.9
한화테크윈	1,557.0	13.0	29,600	2.4	6.1	-18.9	-16.7	23.3	15.0	0.7	0.6	2.9	4.3
LIG넥스원	1,059.3	11.2	48,150	3.9	1.9	-20.1	-19.5	18.9	13.5	1.6	1.5	8.9	11.5
태웅	388.1	3.8	19,400	1.3	-5.6	-0.8	0.3	N/A	N/A	N/A	N/A	N/A	N/A
동성화이텍	218.0	5.2	8,080	-1.3	-8.0	54.5	60.0	-336.7	47.8	2.3	2.3	-0.7	5.0
한국기본	275.2	15.7	6,260	0.2	-1.6	14.9	16.8	52.0	28.0	0.8	0.8	1.7	3.1

주: 커버리지 업체 PER/PBR/ROE는 메리츠종금증권 추정치, 그 외 업체는 Bloomberg 컨센서스 수치 / 자료: Bloomberg, 메리츠종금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지표 및 차트**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BP closing in on winner for Tortue FPSO prize**

오일메이저 BP의 Tortue FPSO 프로젝트에서 TechnipFMC와 중국 Cosco Shipping Heavy Industry의 수주가 유력하다고 보도됨. 일부에서는 확정은 아니며 뒤늦게 바뀔 가능성이 있단 시각도 존재함. Tortue FPSO 프로젝트에는 TechnipFMC-Cosco를 포함, 현대중공업-KBR, SBM Offshore-SWS, 삼성중공업-Wood Group Mustang, Modec-Jurong, Dalian이 경쟁함.

올해 1월 현대중공업-KBR이 유력한 수주후보로 보도됐으나, 발주처의 결정이 바뀐 이유에 대해서는 추측만 무성하고 불분명한 상황임. TechnipFMC는 Cosco에 Hull과 LQ(Living quarter) 제작과 통합을 맡길 가능성이 높음. 반면 Topside 부문은 다른 업체에 제작을 맡길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짐. (Upstream)

"제2 한진해운 없다"…김영춘, 해운재건 5개년 계획 발표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4월 5일 오전 10시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공개할 예정임. 5개년 계획에는 1) 안정적 화물확보, 2) 경쟁력 있는 선박 확보, 3) 선사 경영 안전 방안이 담길 전망임. 이로써 세계 5위 수준의 해운강국 재건을 목표함. 또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7월까지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을 목표함. (이데일리)

조선3社, 안찾아간 선박 처분으로 현금 확보 나서

최근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이 Seadrill과 계약 해지한 데 이어 현대중공업도 대만 선주 TMT사와 계약한 선박을 경매에 넘기기로 결정했다고 알려짐. 현대중공업은 TMT사의 파산으로 건조대금을 받지 못한 '초대형 석탄·유류운반선(VLOC)'를 경매에 부칠 예정임. 중고선가는 7천만달러 수준으로 알려짐. (아이뉴스24)

Chinese shipbuilding giant to put rival yards in the shade

중국 국영조선사 양대 그룹인 CSSC와 CSIC가 통합될 수 있다는 가능성성이 제기됨. 중국 정부는 두 그룹의 합병안을 예비 승인한 상황이며, 합병 가능성은 매우 높은 상황으로 알려짐. CSSC와 CSIC는 각각 7개 조선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두 그룹의 합산 수주잔고는 글로벌 수주잔고의 13% 수준으로 알려짐.

TradeWinds와 Bloomberg 등에서는 두 그룹의 합병으로 글로벌 선사들의 신조선 발주가 합병된 그룹으로 쏠릴 수 있다고 우려함. 두 그룹 산하 조선사의 포트 풀리오는 전 선종에 이르며, CSSC는 향후 크루즈선에도 진출할 계획임. 작년 매출 기준 CSIC는 490억달러, CSSC는 319억달러 수준인 반면, 현대중공업은 137억달러, 대우조선해양은 98억달러 수준으로 알려짐. (TradeWinds)

현대상선 '퀸'선 20척 입찰 7월로 연기?

현대상선의 대규모 컨테이너선 건조 입찰 시점이 7월로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됨. 주된 이유는 정부의 해운산업 재건 5개년 계획 발표가 미뤄졌기 때문임. 현대상선은 총 20척의 컨테이너선을 국내 조선사에 발주할 계획은 세웠으나, 정부의 5개년 계획이 발표된 후 입찰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으로 알려짐. (선박뉴스)

국제선박투자, 中과 VLOC 발주 상당

국제선박투자운용(KMARIN)은 2020년 인도 조건으로 32.5만DWT급 VLOC 4+1척 발주를 위해 중국 조선업체와 접촉한다고 알려짐. 중국에 발주하는 주된 이유는 선가로, 현대중공업은 척당 8천만달러인 반면 중국은 7.4천만달러로 알려짐. 해당 선박은 Vale와 체결한 장기운송계약에 투입될 예정임. (선박뉴스)

동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시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8년 4월 2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율은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시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8년 4월 2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김현)

동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시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원칙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